

성, 연령, 사회적 지원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Sex, Age, an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of the Aged.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李 信 淑
동신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전임강사 曹 玉 姬

Dept. of Home Management Sunchon National Univ.

Instructor : Sin Sook, Lee

Dept. of General Education for Woman

Instructor : Ok Hee, Cho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sex, age, degree of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of the old aged and to provide information for finding out ways of developing their self-esteem.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504 old aged in Kwang-ju and Jun-nam.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reliability, ANOVA, stepwis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SAS package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 1) The self-esteem of old aged was 27.2, which was above the median 22.5
- 2) According to the results related to the old aged, the effect were by sex, age, social support. There were als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y age*social support, sex*age*social support, sex*social support, sex*age, it was shown that influencing variable on their self-esteem was sex, social support, sex*social support, sex*age, age.

I. 서 론

오늘날 고도 산업사회의 도래는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 노령화 현상을 가져왔으며 과학의 발달은 고령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고독과 소외 그리고 빈곤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대책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를 미처 갖추지 못한 채 가족제도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풍조 등으로 생활주기의 궤도를 잃고 노인의 지위는 점점 퇴색해 가고 그 말은바 생산인구에서의 역할은 미약해져서 비생산인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노부모 부양의 절대적인 의무를 담당하였던 가족내 부양의식과 가치관은 큰 변화가 일어나 전통적인 효의식과 노부모 책임의식은 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은 '선가정 보호·후사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노인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많은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에 봉착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들과의 별거, 친지나 우인과의 사별, 퇴직, 주거문제 등이다. 이렇듯 노년기에 경험하는 많은 상실과 적응력의 감퇴, 그리고 가족내의 역할 변화 등은 노인이 인생의 다른 시기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성순(1985)도 노인은 환경의 변화에 의한 재래의 관습 파괴, 개인적 자주성의 상실로 인한 의존심의 증대, 건강쇠퇴에 의한 활동의 제한 등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능력의 상실로 인한 열등감의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를 추구하는 인간은 어떻게 하여 최대의 인생만족을 누리며 생애를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희망이요 과제가 된다(서병숙, 1991).

Rogers(1952; 서병숙, 1991에서 재인용)는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기 위한 노년기의 과제는 자기혐오를 극복하고 자아의 통합성에 대한 감각을 갖는 일이라

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들은 환경의 변화에 의한 재래의 관습파괴, 개인적 자주성의 상실로 인한 의존심의 증대, 건강쇠퇴에 의한 활동의 제한,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능력의 상실로 인한 열등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러가지 주변환경과의 부적응과 관련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불안과 고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현대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대부분이 인생초기의 여러가지 경험에 의해 발달한다고 믿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김기정, 1984; 김영이, 1994; 김희화·김경연, 1993; 원영희, 1990; 이은혜외 2, 1992; 최보가·전귀연, 1992)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김은주, 1995; 송대현·박한기, 1992; 신효식, 1993)는 거의 드문 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존중감은 인간발달의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변화 가능하며 인간의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하겠다(Mussen, Conger & kagan, 1980).

한편 Robertson과 Simonds(1989), Kitahara(1987)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가 아동의 낮은 자존감과 관련 있으며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동기와는 약간의 다른 특성이 있긴 하지만 노년기에는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역할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신기능의 쇠퇴로 인하여 자유로운 환경통제와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자연히 타인의 도움받기를 원하며 전체사회에서 약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역할전이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가족/친구지원) 정도에 따라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며

더구나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는 계속되는 자아개념 형성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일때 자긍심은 높아지며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력 및 생활만족의 정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연령, 사회적 지원을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을 기초로 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사회적 지원을 가상적 변수로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문제1〉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2〉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관련변인(성별, 연령, 사회적 지원)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차이는 어떠한가?
그리고 관련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3〉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련변인(성별, 연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아개념(self-concept)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Pope et al., 1988)로 자기 사랑(self-love), 자기 존경(self-respect), 자기 수용(self-acceptance), 자기 평가(self-evaluation), 자기 가치(self-worth) 등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다(Rosenberg, 1965).

그런데 자아개념은 자신을 대상으로 볼 때 자신에 대해 갖는 개인의 인지와 감정의 총체이므로 자아존

중감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Gleitman(1981)에 의하면 ‘나’에 관한 개념의 기원은 자신의 몸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신체아로부터 출발하여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비롯되는 사회아로 설명한다. 즉 자아개념이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모든 특성들의 구조물이며 자아존중감이란 단일한 차원의 개념으로서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Rosenberg, 1979). 김태련과 장휘숙(1988)도 자아개념이란 ‘나’로 간주할 수 있는 나 자신의 특성으로서 신체적 특성은 물론 개인적 특성, 기술, 가치관 및 희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비해 자아존중감이란 자아개념에 부여하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 가치감(feeling of self-worth)과 동의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반응과 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형성된다(김태련, 장휘숙, 1988). 그리고 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를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타인에 의한 대우 및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인 가치감이다(Mussen et al., 1985).

이러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성취의 차원과 관련하여 개인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가능성에 대한 실제의 성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Schwartz et al., 198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경연, 1987; 김숙경, 1987; 양혜승, 1974; 원환희, 1990; 심영현, 1981; 이미정, 1987; Rathus, 1987; Zimbardo, 1985)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로 보아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이론들은 자아존중감이 인간 발달 초기의 여러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인 Mead(1970)도 인간이 사회집단에 통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은 형

성된다고 보았으며 Sullivan은 가족관계에서 얻는 대인관계의 경험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타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필요로 했던 만족감을 성취했으므로 성취도가 자기 적절감(self-adequacy)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필요로 했던 만족감을 획득 못했으므로 느껴졌던 자기 부적절감 또는 무력감 등에서 형성되어 지는 것이다(김은주, 1995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신이 지각한 자아와 이상의 자아가 잘 조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에 대하여 좋게 느낀다. 결국 높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효율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김경연, 1987; 김영이, 1994; 이미정, 1987; Berk, 1991; Mussen et al., 1980).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지지, 격려, 책임있는 행동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져 있고 부모의 거부는 피곤함, 의기소침, 불행감 등의 느낌을 초래한다. Openshaw 등(1986)은 23개의 연구를 분석한 후 21개의 연구가 부모의 온정과 애정과 같은 지지적인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했으며 부모의 통제적인 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그 발전이 늦어 약 1950년대 부터 시작되었는데(서병숙, 1990) 일반적으로 중년기와 노년기에 나타나는 많은 상실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과거생활에 대한 백일몽, 방심상태, 불안이나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퇴직, 타인으로부터 노인취급을 당

하는 체험등 노년기의 역할변화의 유무와 부적응 상태, 노인과 노화에 관한 그릇된 신화 등은 노인들의 자존감에 지대한 손상을 주고 있다.

이와같이 노년기는 유아가 서서히 사회의 가치규범이나 행동방식을 익혀가는 과정을 마치 거꾸로 하듯이 사회생활에서 물러나 서어비스의 수용자가 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역할역전을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외해증후(socisl breakdown syndrome)로 심리적으로 약한 노인이 사회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고 이것이 자아개념에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의 악순환관계를 가져온다(구자순, 1992).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인 Bengtson, Reedy & Gordon(1985)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노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적 생활사건들에 의해 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키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로 전시자(1988)는 병원입원 노인과 양로원 노인을 조사한 결과 양로원 노인의 건강인지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양로원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입원환자의 자아존중감보다 낮다는 것을 밝혀 건강이 좋고 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Krause(1987)에 의하면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강화되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많은 긴장요인이 완화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기 위한 노년기의 과제는 자기힘오를 극복하고 자아의 통합성에 대한 감각을 갖는 일인데 Havighurst(1972)는 1)체력과 건강의 쇠퇴기에 대한 적응 2)은퇴와 감소된 수입에 대한 적응 3)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적응 4)동년배 집단과 친근한 관계 유지 5)사회적·시민적 의무의 감당 6)안락한 생활의 정돈 등을 그 과업으로 들고 있다.

2)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관련변인

(1) 노인의 성

먼저 기존의 연구가 많이 되어왔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상반되고 있다. 즉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여아의 자아존중감보다 높다는 연구들(양혜승, 1974; 심영현, 1981)은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부모의 사회적 기대가 여아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여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인 Bledsoe(1964) 연구는 4, 6학년의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9-11세의 여아가 남아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 성숙이 높은 자아존중감에 기여하며 동성모델인 어머니나 여교사와 접촉할 기회가 더욱 빈번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자아상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이라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김경연, 1987)는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가정내에서의 전통적인 부권의 약화 등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노인의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지만 한국노인들의 자존심실태를 파악한 송대현·박한기(1992)는 연구를 통해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의 자존심이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결혼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살펴 본 김은주(1994) 역시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Ward(1978)는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는 교육수준이나 수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한 영향변인이고 여자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역할변화와 활동 등 생활과 역할상실의 경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같은 노인대상의 일관된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자노인은 사회문화적·가정적으로 남자노인과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평생을 남편과 자식에게 희생과 봉사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활이 없이 의무만 강조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만족이 남자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자녀출가로 인해 상실과 허전감의 정서적 문제를 낳기 쉽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고부갈등이라는 구조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젊은 여성들의 교육을 받는 기회의 증가로 사회진출, 경제활동은 머느리에 비해 여자노인을 상대적으로 약자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는 여자노인에게 청춘과 아름다움의 상실에서 오는 그리고 현재 자기 자신의 외모의 추함에서 오는 비관과 우울의 바탕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신체적 장애를 호소하고 타인의 주의를 끌기도 한다(박조열, 1983). 한편 잦은 출산과 과도한 가사노동의 경험은 신체적 노화를 촉진시켜 허리가 굽거나 골다공증등의 관절염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자노인의 생활배경은 주로 가정내에 국한되었고 여성의 직장생활의 단기화, 저수준의 평균임금, 취업의 곤란으로 결국 경제력이 없어 여자노인의 생활고는 남자노인보다 훨씬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 악화된다. 우리나라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은 남자노인보다 높기 때문에(통계청, 1991: 남자노인, 67.4세, 여자노인, 75.4세) 여자노인의 대부분이 사별로 인해 혼자 지내고 있다. 이렇듯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과의 사별은 생계수단의 상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이나 고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소외감, 고독감을 느끼기도 쉽다. 한국 갤럽조사연구소(1984)는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감 정도는 여자노인(32.5%)이 남자노인(24.6%)보다 더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같이 배우자의 상실은 경제적·정신적 지주를 잃음과 동시에 여자노인이 지녔던 지위, 권위까지도 흔들리게 되어 긴 노인생활을 보내면서 삶의 만족도가 남자노인보다 낮고 따라서 자아존중감도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연령

김태현(1981)은 연구에서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부양을 필요로 하고 배우자의 상실이나

심신의 약화로 인한 고독, 소외의 문제를 더 많이 안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감소하고 자녀에게 보다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잘못된 myth는 노인이 되면 사고의 정확성과 탄력성을 잃어 간다는 편견을 주어 퇴직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고 노인을 역할없는 역할자로 간주하여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있다.

재가노인과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김옥수(1987)는 재가노인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다른 한국 노인의 자존감의 실태를 조사한 송대현·박한기(1992)도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단순히 고령화된다는 것이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또는 고령과 더불어 다른 사건(예; 신체적 질병, 사회적 고립감 등)에 의한 것인지는 동일대상자들을 시간적으로 측정해 보는 종단적 연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볼 때 노인의 연령증가는 건강약화와 경제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적 지원(가족/친구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상관관계가 높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Loed, Horst와 Horton(1978)의 연구에서는 지지적인 어머니를 가진 아동에게서 높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났음을 발견했으며, Rorbertson과 Simons(198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 격려, 책임있는 행동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Barbar(1988)도 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지지적인 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져 있으며 부모의 통계적인 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

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지원과 크게 관련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김경연, 1987; 심영현, 1981; 이미정; 1987)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 애정적일 때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으며 거부적, 부정적일 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그를 둘러싼 환경, 그 중에서도 그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과의 관계속에서 발달해 간다. 아동의 경우는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면 나이가 든 노부모의 경우에는 그들이 의존하게 되는 자녀가 될 것이다.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정부, 사회보호기관, 전문가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심리적 의존성을 해결하며 감정적 안정을 부여하는 지원은 가족을 비롯한 친밀한 사람에 의하여 충족된다(김효심, 1994). 특히 가족은 배우자의 죽음, 은퇴, 자녀의 분가로 인한 노인들의 신체 및 심리적 안녕에 중요하며 그 중 자녀의 도움은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 Brody(1979)는 이러한 상황을 '역할역전' '역할전이' 또는 '제2의 아동기(the second childhood)'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생애주기 관점에서 의존성이 병리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시기는 이와같은 생의 초기와 노년기이다(이가옥 외, 1990). 이와같이 자녀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노인의 의존성은 병리적인 현상도 아니고 잘못된 현상도 아닌 생활주기상에 나타나는 노인의 '권리' 이자 '정상적'인 자연스런 현상이다(Blenkler, 1965).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에게 나타나는 의존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의 의존의 형태는 경제적인 의존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서 은퇴 후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다(이신숙·서병숙, 1991; 서병숙, 1988). 한국갤럽조사보고(1984)에 의하면 조사대상 노인의 78.2%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자녀에게 의존을 받고 있으며 주된 수입이 자녀에 의해 충당되는 경우도 72.4%나 된다고 하였다. 두번째로 지

적할 수 있는 노인의존의 형태는 자녀나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정서·사회적인 정신 능력의 의존이다. 경제적인 빈곤과 건강악화와 함께 노인 3대苦的 하나로 지적되는 고독감, 소외감은 현대 사회가 갖는 특징인 핵가족화로 인한 노부모와의 별거가 일반화할 경우와 노인의 사회적 지원이나 권위가 저하되고 노인의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나타난다. 이와같은 의존성은 가족이나 극히 가까운 친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중 자녀의 역할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은 노인의 정서적 의존성을 충족시킬 원천이며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은 가족으로 하여금 심리적 도움과 안정을 갈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노인의 의존형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의존이다. 노인들은 되도록이면 자립하려고 하지만(Seelbach, 1977; Troll, 1971) 노화에 따른 여러 상태의 약화는 자녀에게 의존이 높아져(Streib, 1972) 생애 초기에 이루어졌던 부모-자녀 간 도움의 균형이 깨지고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더 많은 도움이 요구되는 역할의 전이를 가져온다(Gibson, 1985; Brody, 1979).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의 도움이 요구되는 노인에게 있어서 자녀를 비롯한 친지, 이웃의 도움은 중요하며 그들의 생활만족과 노년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용시설 입소자와 단독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조사한 Chown(1977)은 수용시설 거주자의 자아존중감은 단독거주자의 자아존중감보다 낮으며 그들은 그들의 생활은 아주 불행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송대현·박한기(199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노인들의 자존감은 높다고 하였는데 Krause(1987)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가운데에서도 정서적 지원이 핵심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노인기에 경험하는 많은 상실은 가족, 그중에서도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에 의해 완화되며 그로인해 생활만족 및 그들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데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신뢰, 사랑, 돌봄, 가치감을 보장받을 때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신효식, 1993).

Ⅲ. 연구 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 가족 지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부분 등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노인의 성별, 연령 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조사되었고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김효심(1994)이 작성한 가족지원의 정도를 묻는 18문항과 친구의 지원 정도를 묻는 17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는데 그 중 가족지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친구지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그가 제작한 10문항 중 우리의 실정과 거리가 멀어 전체 총점과 문항 간의 상관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본 연구를 위한 척도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1995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인학을 수강받는 학생들에 의해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모두 550부였으나 그 중 부실 기재된 46부를 제외한 504부를 본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 +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ANOVA, Duncan-Tes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적용함에 있어 명목변인인 노인의 성별을 가변수화

(Dummy) 하였는데 남자(0), 여자(1)로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을 성별로 분류하여 볼 때 여자노인이 276명(54.8%)으로 남자노인의 228명(45.2%)보다 더 높게 응답하였고 그들의 연령은 60대가 179명(35.5%), 70대가 177명(35.1%), 50대 이하가 92명(18.3%), 80대 이상인 경우가 56명(11.0%) 순이었다.

사회적 지원 정도에 있어서는 중간정도의 도움이 42.1%(212명), 많은 도움과 적은도움이 각각 31.7%(80명), 26.2%(66명)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 인	구 분		노인(N=504)	
			N (%)	
성 별	남		228 (45.2)	
	여		276 (54.8)	
연 령	50대 이하		92 (18.3)	
	60대		179 (35.5)	
	70대		177 (35.1)	
	80대 이상		56 (11.0)	
사회적 지원	가족의 지원 M(SD)	64.1 (12.5)	상 중 하	160 (31.7)
	친구의 지원 M(SD)	52.9 (11.7)		212 (42.1)
	M (SD)			64.1 (12.5)
자 아 존중감	상		156 (31.1)	
	중		208 (41.3)	
	하		140 (27.8)	
	M (SD)		26.2 (4.82)	

IV. 결과 및 논의

1. 연구문제의 분석

1) 연구문제 1의 검증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도와 노인의 자아존

중감은 <표 1>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원은 평균 117.0점(최대값:175점, 최소값:35점)으로 중앙치인 105점보다 높았다. 사회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족의 지원과 친구의 지원으로 나누어서 그 정도를 살펴보니 가족의 지원은 평균 64.1점(중앙치 54점)이었고 친구의 지원은 평균 52.9점(중앙치 51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노부모는 사회적 지원의 대부분을 친구보다는 그들의 가족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과 그들의 노후 부양이 자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7.2점으로 최대값인 40점과 최소값인 5점의 중앙치인 22.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인의 자존심의 실태를 조사한 송대현·박한기(1992), 김은주(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그다지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노년기에는 사회나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과 지위가 변화하게 되는데 한국사회가 갖는 노인부양 체계의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사회보장 체계의 미비등은 노인들의 자존감을 그다지 높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된다.

2) 연구문제 2의 검증 :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

<표 2>와 같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성별($F(4.66)=15.76, P<.001$), 연령($F(4.66)=3.66, P<.01$), 사회적 지원($F(4.66)=3.52, P<.05$)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연령*사회적 지원($F(4.66)=5.31, P<.001$), 성별*연령*사회적 지원($F(4.66)=4.81, P<.001$), 성별*사회적 지원($F(4.66)=4.19, P<.01$), 성별*연령($F(4.66)=2.18, P<.05$)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연령이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지원이 중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3>과 같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

〈표 2〉 노인의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집단		노인 (N=504)					
변량원	평균	Duncan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성별 (A)	남	2.21	A	1	6.65	6.65	15.76***
	여	1.88	B				
연령 (B)	50대 이하	2.26	A	3	6.18	2.06	3.66**
	60대	2.11	AB				
	70대	1.93	BC				
	80대 이상	1.79	C				
사회적 지원 (C)	하	1.91	A	2	2.98	1.49	3.52*
	중	2.00	AB				
	상	2.18	B				
A * B			4	3.68	0.92	2.18*	
A * C			2	3.54	1.77	4.19**	
B * C			8	17.94	2.24	5.31***	
A * B * C			6	12.19	2.03	4.81***	

하:(평균(M)-표준편차/2(SD/2)) < 중 <(평균(M)+표준편차/2(SD/2)):상

*** P<.001

〈표 3〉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변인	노인 (N=504)		
	B	β	Partial R ² (step)
성별 (A)	-0.33	-0.68	0.05 (1)
연령 (B)	-0.27	-0.83	0.01 (5)
사회적 지원 (C)	0.18	0.24	0.02 (2)
A * B	0.08	1.12	0.01 (4)
A * C	0.07	0.17	
B * C	-0.04	0.29	0.02 (3)
A * B * C	-0.05	-0.64	
회귀 상수			2.54
R ²			0.13
F			5.03***

*** P<.001

은 성별(-0.68), 사회적 지원(0.24), 연령*사회적 지원(0.29), 성별*연령(1.12), 연령(-0.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3%이었다. 그 중에서도 노인

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성별은 5%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회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 = 2.54 - 0.33X_1 + 0.18X_2 - 0.04X_3 + 0.08X_4 - 0.27X_5$$

$$Y = \text{자아존중감}$$

$$X_1 = \text{성별 } X_2 = \text{사회적 지원 } X_3 = \text{연령} * \text{사회적 지원}$$

$$X_4 = \text{성별} * \text{연령 } X_5 = \text{연령}$$

즉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남자노인이,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이와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송대현·박한기(1992)의 연구와 김은주(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노인의 성별이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하여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밝힌 양혜승(1974), 심영현(198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여자노인의 경우 사회 문화적·가정적으로 남자노인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며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노인이 그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타격으로 여자노인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여자노인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감소와 역할상실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갈등이 그들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원이 노인의 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작용(김효심, 1994; 서미경, 1990; 윤경아, 1990; 이신숙, 1995)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히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온정적인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Openshaw와 Thomas(1986)의 연구와 Robertson과 Simons(198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단독변인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해석된 바 있으나 이러한 단독변인의 영향력이 다른 변인(여기에서는 성별, 연령)과 각각 상호작용할 때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지원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히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 이외에도 형제, 자매와 친척, 친구 이웃의 도구적·정서적 지원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유지시키고 정서적 측면의 부작용을 완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등을 통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는 성별, 연령, 사회적 지원을 주요 관련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고 동시에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노인 504

명(남자노인 228명, 여자노인 276명)을 대상으로 면접법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다변량분석(ANOVA),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중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평균 117.0점(중앙치:10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족의 지원과 친구의 지원으로 나누어서 그 정도를 살펴보니 가족의 지원은 평균 64.1점(중앙치 54점) 이었고 친구의 지원은 평균 52.9점(중앙치 51점)이었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7.2점으로 최대값인 40점과 최소값인 5점의 중앙치인 22.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나 비교적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성별($P<.001$), 연령($P<.01$), 사회적 지원($P<.05$)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연령*사회적 지원($P<.001$), 성별*연령*사회적 지원($P<.001$), 성별*사회적 지원($P<.01$), 성별*연령($P<.05$)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연령이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지원이 중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별, 연령, 사회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성별(-0.68), 사회적 지원(0.24), 연령*사회적 지원(0.29), 성별*연령(1.12), 연령(-0.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3%이었다. 즉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남자노인이,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의해 조사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서구의 노인들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였다.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그들의 성과 연령, 사회적 지원이 갖는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나이 든 노인들에 대한 더욱 많은 배려와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관심과 경제적 지원 및 건강유지를 위한 방안은 모색이 되어야 하겠다. 더구나 여자노인은 남자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가정내 생활에 큰 의미가 부여되는 등 그들만이 갖는 특유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여자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야 하겠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1차적 기능은 정서적 안정과 보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부모에 대한 효와 부양의식의 고취,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가족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은 노후생활의 안정이라는 생활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할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사회·정책적인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노화과정의 적응패턴에 알맞는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한데 노인 시설 및 기관, 각종 여가활동, 자원 봉사활동, 취미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부적응 상태와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합당한 특별보호, 노인상담소의 개설등 그 관심 영역은 매우 넓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 2)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3) 김숙경(198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대 석사 학위논문.
- 4) 김영이(199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옥수(1987).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2(8), 517-524.
- 6) 김은주(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김태련·장휘숙(1988). 발달심리학. 서울 : 박영사.
- 8)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9) 김효심(1994).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 정도, 사회적 지원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10) 김희화·김경연(1993). 아동의 자아존중감 : 구성영역과 발달. 아동학회지, 14(1), 129-139.
- 11) 서미경(1990). 노인의 정신 건강과 부양의 완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0, 68-86.
- 12)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13) 서병숙(1991). 노인연구. 교문사.
- 14) 송대현·박한기(1992). 한국노인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79-96.
- 15) 신호식(1993).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 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16) 심영현(198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법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7) 양혜승(1974).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 18) 원영희(199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이가옥·권선진·권중돈·이원숙(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 연구원.
- 20) 이미정(1987).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21) 이신숙·서병숙(1991). 농촌 기혼여성의 노인 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11.
- 22) 이신숙(1995). 유·무배우 여자노인들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의 지원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여성연구(목포대 여성문제 연구소), 3, 159-179.
- 23) 이은해·신숙재·송영주(1992). 국민학교 3-6학

- 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논집(연대 생활과학 연구소), 6. 175-191.
- 24) 전시자(1988).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일 병원 입원 노인환자와 일 양로원 노인을 중심으로-. 적십자 간호 전문대 논문집, 10. 125-144.
- 25) 최보가,전귀연(1992).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SEI)의 구성 타당도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논문집, 24. 1-15.
- 26)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의 의식구조 비교조사.
- 27) Bengtson,V.L., Reedy,N.N., & Gordon,C.(1985). Aging and self-conceptions : personality and social contexts. In J.E. Birren & K.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
- 28) Berk,L.E.(1991). Child development. (2nd Ed.), Boston : Allyn and Bacon.
- 29) Bledsoe,J.C.(1984). Self-concepts of children and their intelligence, achievement, interests and anxiety. J. of Individual Psychology, 20. 55-58.
- 30) Blenkner,M.(1965). Social work and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with some thoughts on filial maturity. In E. Shanas & C.F. Streib(Eds.). Social Structure and the Famil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31) Brody,E.M.(1979). Aging parents and aging children. In : Pagan,P.K.,(Eds.), Aging Parents. Los Angeles, Calif.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267-287.
- 32) Gibson,D.M.(1985). The dormouse syndrome- Restructuring the dependency of the elderly. ANZJS, 21(1). 44-63.
- 33) Gleitman,H.(1981). Psychology.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 34) Havighurst,R.L.(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Y.,David Mckay.
- 35) Krause,N.(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 349-356.
- 36) Openshaw,D.K., Thomas,D.L., & Rollins,B.C. (1981). Adolescent self-esteem :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J. of Early Adolescence, 1. 273-282.
- 37) Mussen,P.H., Conger,J.J., Kagan,J. & Huston,A.C. (1985). Children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Inc.
- 38) Pope,A.W., McChale,S.M. & Craighead,W.E.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 39) Rosenberg,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Inc.
- 40) Schwartz,A.N., Snyder,C.L. & Peterson,J.A.(1984). Aging and Life : An introduction to gerontology (2nd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 41) Ward,R.A.(1978). Limitations of the family as a supportive institution in the lives of the aged. Family Coordinator, 27. 365-373.
- 42) Zimbardo,P.G.(1985). Psychology and life (11th ed.). Scott, Foresman and Company.